

**CLEAR.  
COMPLIANCE.  
CAMPAIGN.**

MAGAZINE  
COMPLIANCE

ISSUE NO.6  
CCC  
REVIEW

DECEMBER 2022

**C**

Inspired by MAGAZINE B

---

**CLEAR  
COMPLIANCE  
CAMPAIGN**

# INTRO

컴플라이언스 문화 형성을 위한 월간지, 매거진C 12월호

##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컴플라이언스 문화

안녕하십니까? C/P TF 입니다. 이번 매거진C 주제는 “클리어 컴플라이언스 캠페인(Clear Compliance Campaign) 리뷰”입니다. '22년 4월 TF 발족 이후 7월부터 월간 매거진C를 통해 준법경영 기준과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 특수강·메탈의 컴플라이언스 정착기

너무나 생소했던 컴플라이언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요? 낯선 주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장 손쉬운 매체인 지류 매거진을 선택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세아그룹 사보 <세아가족>은 익숙하게 읽곤 하니까요.



4월의 우리, 12월의 우리를 비교해보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달라진 것 같으신가요? 시작은 C/P TF에서 물꼬를 텄지만, 지금의 문화와 인식은 다함께 만들어 온 과정이었습니다. 2022년 클리어 컴플라이언스 캠페인을 되돌아보며 그간의 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이

# 올 한해 CCC 어떠셨나요?

깨끗(청렴)하고 + 명확한  
준법문화를 위한  
캠페인

Clear  
Compliance  
Campaign

컴플라이언스의 첫 걸음을 시작한 2022년, 세아특수강·세아메탈은  
우리 조직에 적합한 컴플라이언스 추진 방법을 먼저 고민했습니다.  
구호 뿐인 컴플라이언스가 아닌, **실효성 있는 컴플라이언스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컴플라이언스를 **RPC 방법론**으로 정리했는데요. Rule-set  
(기준)을 정의하고, Process(절차)를 구체화하여, Culture(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이제 막 시작한 준법경영은  
모든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시스템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변화관리** 단계로써, C/P TF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사(全社)  
과제임을 모두가 공감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21.9	홀딩스 컴플라이언스팀 신설 (컴플라이언스 조직운영 규정 배포)
'22.2	컴플라이언스 KPI지표 및 평가항목 배포 (SPS 항목 연계)
'22.3-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22.4	<b>C/P TF신설</b>
'22.4-6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S분야 컨설팅
'22.7-12	컴플라이언스 G분야 컨설팅



# 매거진C의 숨은 비밀들

## 매거진C 2022 표지



CCC의 가장 핵심은 매거진C인데요. 월간 매거진C는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문화에 스며들어 업무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특히 표지는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반영했는데요. 1호는 특수강 봉강 제품, 2호는 "우리는 서로의 문화다" 배지를 부착한 작업복, 3호는 지게차 안전장치가 설치된 공장, 4호는 공정성을 상징하는 이미지, 5호는 원사업자-협력업체 근로자의 모습, 마지막 6호는 유퀴즈 등 매거진C 활동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이미지를 담았답니다.

매월 매거진C 발행 시 보냈던 카드뉴스에도 작은 비밀이 있어요. **준법 경영을 통해 더 아름다운 세아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미술 작품을 배경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답니다.**

- 1호 Green, 로낭 부홀렉 작
- 2호 12-V-70 #172, 김환기 작
- 3호 물방울, 김창열 작
- 4호 내재물, 김태호 작
- 5호 Bodyscape, 김건용 작
- 6호 Kama, 최영욱 작

## 매거진C 발간 안내 카드뉴스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한 주제들을 매달 하나씩 다뤄온 매거진C. 그 중 특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2호 3대 무관용 원칙

3대 무관용 원칙은 올해부터 그룹 차원에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호 존중이라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도록 **3대 행위에 대한 기준**을 웹툰으로 보다 쉽게 전달하고 **구체적인 WoW(Way of Working, 일하는 방식)를 제시**했습니다.

“ 모든 직원은 존중 받아 마땅합니다.”

- 1 내가 한 말과 행동은 결국 돌아온다. 조부, 피도한 일백, 육십, 불타던 언젠, 꽃담과 NO
- 2 우리는 직장인(匠)사, 서로를 프로로 대한다. 예의 있고 친절하게 행동해주세요.
- 3 업무처리는 빠르고 명확하게 한다. 누가/무엇을/어떤 방법으로/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시해주세요.
- 4 정보를 나누면, 성장은 배가 되고 부당은 반이 된다. 정보의 목적은 상호 성장을 낳습니다. 정보 공유로 시너지를 만듭니다.
- 5 팀원은 남의 집 귀한 자식, 팀장도 남의 집 귀한 부모이다. 서로의 고충을 이해해주세요.
- 6 회의에서는 先 칭찬 후 의견제시를 실천한다. 상대의 말에 의견을 내기 전에는 우선 칭찬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 7 나 대는 - 대신 래때 한잔을 사준다. 소소한 소통은 서로를 이해하는 힘이 됩니다.
- 8 업무 중 화가 날 때엔 5분 쉬고 다시 시작한다. 화가 날 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잠시 마음을 식혀주세요.
- 9 회식 약속은 마린마린 합니다. 적어도 1주일 전 공유합니다.
- 10 올바른 행동이 맞는지 고민될 땐, 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게 괴롭히는 거 맞아요.
- 11 서로의 미아켓이 되어 살려준다. 조직문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는지 서로가 잘 살펴주세요.

### ▲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3대 무관용 원칙 WoW

**신체적 괴롭힘**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팔을 출입증으로 치고 지나가다니. 회의 시간엔 증이를 던지며 모욕을 주고요. 여기 회사 아닌가요?

**언어적 괴롭힘**  
회의 때마다 "나가", "그만둬라" 평소에는 "이 새끼", "저놈" 욕설하고 "제일이 돌이 않아 있네" 폭언을 하니 자존감이 떨어지네요..

**과대한 요구**  
불합리한 업무 조정을 요청하니 전혀 해보지 않은 업무를 아무런 협의 없이 계속 부여했어요. 운동하러 간 회사 체력단련장에서 개인 트레이너 영합까지.

**과소한 요구**  
전부 요청을 거부했더니 사물함을 바라보는 자리로 배치하더라구요. 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보조업무 중 주고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책상도 주지 않았어요.

**성적 괴롭힘**  
회식 중에 등을 쓰다듬고, 밤늦게 나오라고 건화하고 "너한테 푹 빠진 것 같다"라니요? 선을 지켜주세요.

**경제적 괴롭힘**  
"재계약을 해줄까 말까?" "계약직 자르는 건 일도 아니다" 하고 근로조건을 하향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고요. 이런 회사들 어느 실어?

**인간관계에서의 괴롭힘**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화도 단절시켜 놓으려 하는 건가 심중만 있었는데 공개석상에서의 칭찬, 명전에서의 비웃음, 욕설 등을 경험하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개인영역 침해**  
CCTV 모니터로 감시한다는 것을 메시지로 수시로 알려주더라구요. 승차에서는 약한 적까지 말라며 승마시기를 계속 권했고요. 주말에도 시도때도 없이 오는 연락.. 감옥 같았어요.

### ▲ 직장 내 괴롭힘 사례 구성

# 아는 것에서 행동으로

## 3호 중대 재해 예방

“ 세상을 아름답게, 세아를 안전하게

### 응급처치

**화상** 최초 발견자는 주변 작업자에 도움을 요청, 화상 부위에 대한 응급처치 실시



**과다출혈** 최초 발견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 환부 및 주요 동맥 위치 압박



**신체절단** 최초 발견자는 주변에 도움 요청, 절단 부위 지혈, 절단된 신체부위 보존 실시



\* 일용에 직접 접촉은 안됨

**의식불명** 최초 발견자는 주변에 도움 요청, 심폐소생술 실시, 주변 작업자는 AED (자동 제세동기) 사용하여 지원



중대 재해 예방은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 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사업장에 발생위험도가 높은 지게차, 끼임, 추락의 3대 사고에 대한 위험요인, 예방 방안 및 방지 설비 등을 소개하였는데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긴급 사태, 비상 상황을 맞닥뜨린 경우 선(先) 조치, 후(後) 보고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화상, 과다 출혈 등 상황 별 응급처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큰 재해 : 작은 재해 : 사소한 사고 = 1 : 29 : 300

01 공장동 내 안전보호구는 필수이다.	공장에서의 올바른 안전보호구 착용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02 보행자통로가 아닌면 길아 아니다.	공장에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보행자 통로 뿐입니다.
03 보행 중에도 반드시 주변을 살핀다.	주변을 확인하면 추락사고, 전도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04 작업별 안전수칙을 지켜야 나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	안전수칙 준수하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05 지게차 안전수칙 준수는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이다.	규정속도 준수, 전방시야 확보, 교차로 일시정지
06 지게차 운전은 지정된 직원만의 권한이다.	지게차 무면허자의 지게차 운전은 절대 불가합니다.
07 종량을 이송 크레인, 잇지말자 추락 위험.	기억하세요, 작업반정 내 출입금지, 규정장량 초과금지
08 아무리 작고 느린 설비도 움직이면 접촉 불가!	가동 중인 설비에는 절대 접촉하지 마세요.
09 산재장 챔버는 위험지역, 관리자 허가를 받는다.	산재장 챔버는 출입을 최대한 삼가 해주시고, 출입 필요 시 반드시 허가를 받으십시오.
10 동료들의 안전을 서로 지켜준다.	서로의 지역과 확인으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중대재해 예방 WoW

"하인리히의 법칙" 기억하시나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듯이 안전사고도 대형사고 발생 전 반드시 그와 관련한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대거 발생한다는 법칙인데요.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사람의 노력과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조적 노력이 함께 한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 명확한 기준과

## 4호 공정거래

공정 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0~70년대 정부 주도 성장 우선주의와 여러 사건들로 불공정한 경쟁 정황이 포착되며 공정한 시장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금의 법률이 시행되었는데요.

공정 거래는 1) 자율경쟁이 방해받지 않고, 2) 가격·품질·서비스를 중심 경쟁 전개, 3) 거래 여부·조건을 사업자가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철강업계에서도 철스크랩 구매 가격담합이 적발, 3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되었음을 타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 기업은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과징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4~20%까지도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 마케팅, 구매 등 유관부서는 4호에 제시된 Dos와 Don't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의 부러진 화살, 이용하겠습니까? 공정하게 경쟁하겠습니까?”

###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 경쟁사 임직원과 판매 및 구매 관련 결정이나 조건을 협의한 일이 있다.
- 경쟁사 임직원과 고객분할, 지역할당에 의한 시장분할을 협의한 일이 있다.
- 경쟁사 임직원과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거절을 협의한 일이 있다.
- 경쟁사 임직원과 생산량 제한 또는 관측에 대해 협의한 일이 있다.
- 경쟁사 임직원과 제품가격 또는 판매 조건에 대해 정보를 교환한 일이 있다.
- 이메일·전화·비공식 모임 등 모든 수단 포함하여 경쟁사와 회사 경영관련 정보 혹은 자료를 교환한 일이 있다.
- 가격·인간간 경쟁 관련 권을 논의하는 외에 경쟁사와 잠식한 일이 있다.
- 경쟁사와 함께 참석 한 회의 중 가격 or 조건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암묵적으로 협의하는 태도를 취한 일이 있다.
- 경쟁사와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불필요한 접촉을 가진 일이 있다.
- 사전승인 없이 협회나 사업자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 일이 있다.
- 공식적으로 확보한 경쟁사 정보 인용 시 명확한 출처 기재를 잊은 일이 있다.
- 경쟁사 정보 수집을 위해 신분 속이거나, 임팩사에 정보 요구한 일이 있다.
- 외부 조사기관·컨설팅사를 통해 비공개 정보 수집을 의뢰한 일이 있다.
- 담합이 의심되는 권을 보고하지 않은 일이 있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 소 속회사나 해당 사업영역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거래처와 거래조건 설정 시 일방적이거나 유리·불리한 조건을 설정한 일이 있다.
- 회사간 계열관계 또는 비합리적 기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설정한 일이 있다.
- 거래처에 계약성사 조건으로 경쟁사와 거래하지 말라는 조건을 설정한 일이 있다.
- 거래처와의 계약이행 중 충분한 협의 없이 계약조건을 일방적 변경·통보한 일이 있다.
- 거래처에 일방적으로 회사 제품의 판매 실적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다.
- 계약내용 외 거래처에서 처리는 특정 제품 구입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일이 있다.
- 거래처·협력사에 항응·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일이 있다.
- 대리점·유통사에 재판매하는 당사제품 재판매 가격을 제시·협의한 일이 있다.

### 부당 내부거래 금지

- 계열사간 거래 시 해당 거래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일이 있다.
- 계열사간 거래 시 경쟁입찰을 우선하지 않거나, 긴급·보안·효율성 요건 충족의 면밀한 검토 없이 수의 계약한 일이 있다.
- 계열사간 거래 계약조건 설정 시 비 계열사와의 조건에 준하여 임계 설정한 일이 있다.
- 타 사업자와 거래 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거래상 역량이 없거나 미미한 계열사를 매개로 거래한 일이 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자기진단표

#### ▲ 공정거래법 위반 자기진단표

01	경쟁사와의 모임은 공식비공식 불문 최대한 자제한다.	관련 연구·경쟁사에 당사라면 잠시 잊고 사세요.
02	경쟁사와 가격·거래조건·생산량 등을 일체 논하지 않는다.	회사 근처 커피숍은 알아서 공유하세요.
03	담합 의심 내용은 논의시 명확한 의미와 반대급부를 표현한다.	당당하게 나오세요. 공익보호 포상금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04	어떤 수단으로도 경쟁사와 인간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다.	손으로 경쟁사게 복지를 써서 꼬이잖아 보셨다 안맞는다.
05	경쟁사 정보는 공식 자료를 통해 확보 후 출처를 기재한다.	공식, 컨퍼런스 자료, 언론기사 등 찾아보면 많아요.
06	거래처에 부당한 계약조건을 요구하거나 설정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별첨된 과징금을 징구할 수 있어요.
07	대리점 유통사에 당사품 재판매 가격,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판매한 제품엔, 어떤 오지 않거고 해요.
08	계열사와의 거래시 거래 필요성, 법적 Risk를 면밀히 검토한다.	상사님, 공식대상이랑 일단 상충을 사려한 거랑 일단 3만원, 중지 합시다.
09	다른 사업자와 어떠한 대가성 물품도 주고 받지 않는다.	두 분이 의외로 아닌 법에서 다시 받게 됩니다.
10	의심스러운 문제들은 언제나 사내 관련 부서에 문의한다.	CP, IT, 홀리스 병무팀 및 컴플라이언스팀이 대가중 없니다.

#### ▲ 더 당연한 세아를 만드는 공정 거래 WoW

# 관계의 재정의

## 5호 상생 협력

### “ 개별 서포터에서, 전문가 그룹으로



### ▲ 함께 진화하기 위한 5가지 원칙

#### 체크리스트

※ 체크한 항목은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업무 시 유의

- 작업 시 사용하는 기계·설비·기자재, 부품 및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원사업자가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기계·설비·기자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
-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협력업체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가 사무실 등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 ▲ 5가지 원칙 준수 체크리스트 (협력업체 자체 인프라)

- 01 협력업체는 우리의 하부조직이 아닌, 전문가 그룹입니다. 중증하는 만큼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2 협력업체는 회사 대 회사 독립적 주체입니다. 상대편제가 아니라, 함께 성과를 내는 파트너 관계로 대해주세요.
- 03 “근무시간”이 아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계약입니다. 근무방식, 근무시간이 아닌 업무 완결성, 품질로 소통해주세요.
- 04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는 협력업체 대표자의 권한입니다. 책임은 그 누구도 분기하지 않아요.
- 05 무전, 카톡, 전화, 문자 모두 소통이 아니라 침해입니다. 협력회사 직원에 직접 지시하고 싶은 마음, 고이 담겨주세요.
- 06 협력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해 주세요. 어떠나는 말씀하건로, 너의 일이나 잘 하라고-
- 07 사업장 내 모든 이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근무할 권리를 서로 지켜주세요.
- 08 모든 정보는 한 곳(협력업체 관리자)으로 보내주세요. 협력업체에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09 개인의 사소한 행동이 모여 큰 영향을 줍니다. 정말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전문가 그룹”이라고 생각을 전환해주세요!

### ▲ 더 건강한 상생협력 관계를 위한 파트너십 향상 WoW

상생 협력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내하도급은 원사업자(도급인)로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의 양을 협력업체(수급인)가 맡아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업무 완수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대해 원사업자-협력업체 간에는 명확한 계약이 존재합니다. "도급 계약"은 수급자 책임주의에 입각해 협력회사가 알아서 운영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회사를 "전문가 그룹"으로서 존중하고 협력을 통해 공진화(共進化)하는 관계로 재정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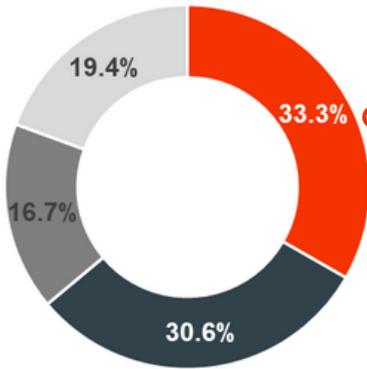
- ①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인사권한
  - ② 협력업체의 자체 인프라(조직, 설비 등)
  - ③ 업무 전문성 및 구분성·한점성·기술성
  - ④ 업무 독립성 및 실질적 편입 여부
  - ⑤ 업무상 지휘·명령 주체
- 위 5가지 원칙입니다.

협력업체와 협업하는 부서에서는 5호에서 자세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어 업무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03

## 매거진C에 대한 피드백

세아그룹 컴플라이언스 KPI 중 "사내문화 개선활동 유효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준법경영 문화" 구축에 초점을 맞춘 올해! 과연 얼마나 유효한 문화 개선이 있었는지 "매거진C 활용도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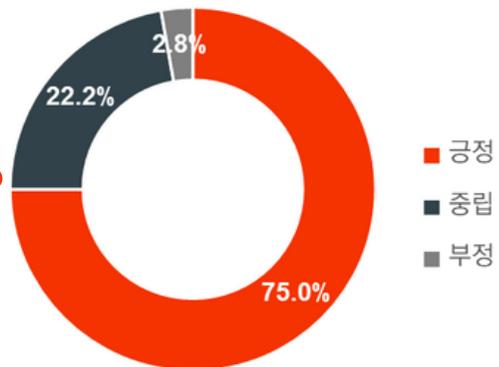
### 정독 여부

첫번째는 배포된 매거진C 총 5회차를 얼마나 열심히 읽어 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63.9%는 대체로 읽어 보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33.3%는 모든 회차를 정독하였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은 충실히 내용을 읽어본 분들께서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 모든 회차 정독
- 대체로 읽어 봄 (3~4개)
- 대강 훑어봄
- 업무와 관련한 내용만 선택하여 읽어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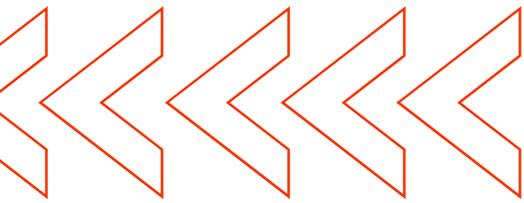
### 이해도

두번째는 매거진C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는지를 여쭙보았는데요. 법령은 누구든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내용은 카툰, 도식화 등을 활용하여 쉽게 표현하고, 사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요.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75.0%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 긍정
- 중립
- 부정

출처 : 매거진C 활용도 조사(22.12) 결과 분석 (총 36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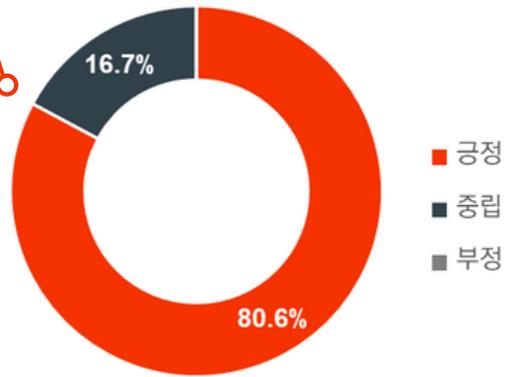


# 준법경영 문화 형성 노력은 유효했을까?

## 전달 용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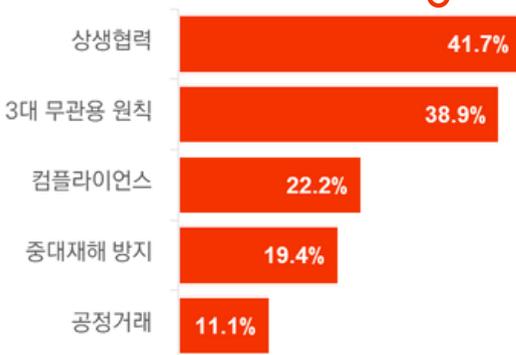
세번째는 매거진C를 받아보기 편리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매거진C는 현장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 모두가 편히 접할 수 있는 매체를 고민, 사보와 유사한 크기와 얇은 두께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발행 안내문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전자 게시판과 문자로 안내드렸는데요. 80.6%는 전달 용이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중립이 16.7%, 부정 응답은 0%로 나타났습니다.



## 주제별 흥미

\* 중복응답 가능



네번째는 어떤 주제가 가장 흥미로웠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본 주제는 "상생 협력"이었는데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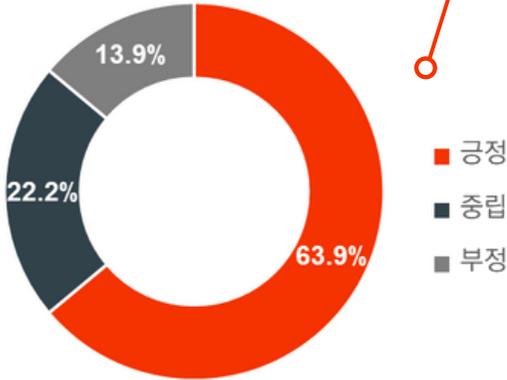
“ ESG 중 가장 범위가 넓고 의미가 불분명한 S 분야에서 회사와 밀접한 동반성장을 주제로 삼은 점이 좋았습니다.

“ 공장 근무를 하면서 관련이 있는 주제였고, 파트너사와 함께 일하는 만큼 상생과 협력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 보다 실효성 높은



## 업무 연관성



다섯번째는 **업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3.9%**로 높은 편이나 다른 질문에 비해 긍정율이 낮은 편이었는데요.

실무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고민은 매거진C에 제시된 WoW(일하는 방식)를 우리 팀 버전 WoW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 업무에 도움이 된 이유

컴플라이언스에 관심과 상식을 갖게 해주었고 어렵פות이 알고 있던 사실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도급사와 함께 소통하는 부분에서 실수했던 점, 업무지시상 조치 사항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Attitude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고, 팀원과 소통할수 있는 기법을 배웠습니다.

주제별로 확인해야 할 상제사항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 하였으며, 자체 진단도 해볼수 있었습니다.

### 업무 적용이 어려운 이유

적용하지 못한건 아니고, 적용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현실에서는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점이 고민입니다.

실무에 적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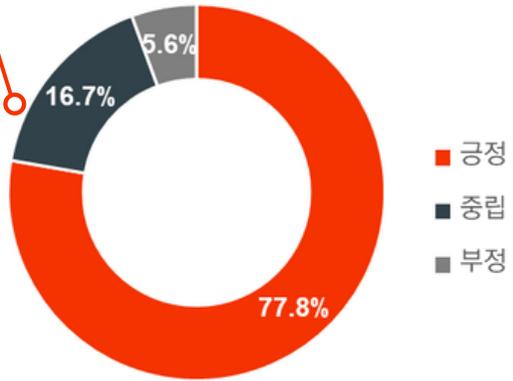
기준에도 잘 지켜왔던 부분이었습니다.

# Clear Compliance Campaign을 위한 제언

## 문화 개선 효과성

마지막, 문화 개선 효과성 질문은 응답자의 77.8%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는데요. 준법경영을 조금이나마 문화에 녹여냈다고 볼 수 있겠죠?

매거진C는 메인 컬러를 SeAH Orange로 통일했는데요. 붉은 색 보다 다른 컬러를 요청하신 의견도 있었어요. 그밖에 다양한 실무 사례 등 피드백 주신 사항은 추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좋은 점

단순한 매거진 발행이었던 금방 잊었을텐데, 스티커, 배지, 특별한살롱 공지 등 지속노출로 인상 깊게 남은 것이 좋았습니다.

매거진 발행이라는 자체만으로도 해당 회차 주제를 전달하는데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양의 내용으로 가볍게 볼 수 있었고, 유익도와 정답자 상품 지급으로 참여를 유도한 점이 좋았습니다.

책자의 내용이 조직원의 안전과 문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이 좋았습니다.

### 개선 필요사항



실질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는 문화가 정립되도록 지속 교육하고 더 현실에 녹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장별 대표이사 간담회 등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를 눈으로 확인한다면 직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요?

철저한 익명성에 기초한 내부 신고제도 강화, 투명한 경영, 자료 공유, 신고 포상제 등의 노력이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매거진C에 다양한 실무 사례를 담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04

## 올해의 우수사례 어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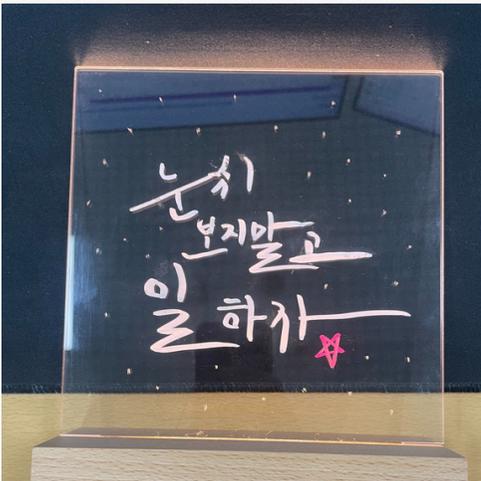
올한해 컴플라이언스 문화 형성을 위해  
너나 할것 없이 다함께 노력해왔습니다.  
모두의 노력을 응원드리고자 합니다.

'22.12.8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컴플라이언스 실천 우수사례를  
공모했는데요. 부서와 개인 단위 공모를 구분하여 접수받았으며,  
총 39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단체 부문 우수사례입니다. 각 부서에서 매거진C를 가지고 의  
견을 나누거나, WoW(일하는 방식)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인증사진  
등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 봉강생산팀(포항)

최우수



“

3대 무관용 원칙은 사회 첫 걸음을 댄 신입  
사원에게 특히 긍정적인 효과를 느낍니다.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경청해  
주고, 같이 시도해주는 팀분위기.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팀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3대 무관용 WoW을 보고  
팀 슬로건을 "눈치 보지 말고 일하자" 로 정해  
건강한 조직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부서 우수사례

최우수

## 물류팀(충주)



“

최근 준법, 컴플라이언스, 윤리경영이란 단어를 마스크에서 흔히 접할수 있습니다. 물류팀은 매거진C를 통하여 준법경영, 윤리경영 사례를 매월 회의시간 공유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실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업무중 의도치 않은 실수로 행해 질 수 있는 범법사례를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수

## 안전환경팀(충주)



“

올해 하반기 이태원 참사, OO 업체 끼임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적당히 읽어보고 넣어 두었던 매거진C 9월호에 중처법부터 끼임사고, 응급조치 등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인만큼 매거진의 글을 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부족한 점은 채워주는 미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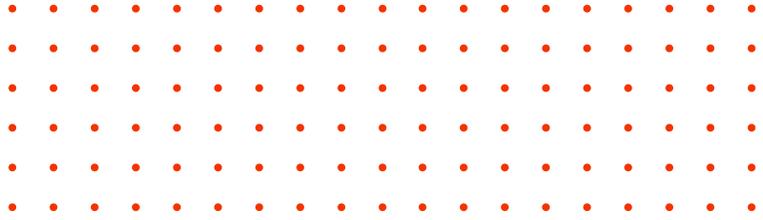
## 봉강생산팀(충주)



“

협력업체 대표와 자사 관리자들이 함께 모여 매거진C 5호 상생협력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협력업체 관리자로서 놓치고 있던 관리포인트를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 개인 우수사례



"개인" 부문 우수사례입니다. 개인 부문은 2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는 "나에게 컴플라이언스는 000이다."에 들어갈 단어와 선정 이유를 제출하는 것이었는데요. 다양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취합되어 선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최우수상** 특수강 안전환경팀(충주) 장성태 사원

## 컴플라이언스는 우리의 북극성이다.

하늘에서 밝게 빛나며 북쪽을 알려주는 북극성, 어두운 밤 옛 선원들의 길잡이가 되어준 것처럼, 올바른 세아인이 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수상** 특수강 품질보증팀(충주) 장기훈 사원

## 컴플라이언스는 우리의 이정표이다.

중대재해, 공정거래 준수, 하도급 거래, 3대무관용에 대한 내용을 리마인드할 수 있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컴플라이언스 매거진. 앞으로도 정독하겠습니다.

**우수상** 특수강 봉강생산팀(포항) 안일환 과장

## 컴플라이언스는 우리의 종합비타민이다.

비타민 종류에도 A, B, C, D, E와 같이 여러 군의 비타민이 있으며, 각각 군마다 영향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다릅니다. 컴플라이언스 매거진은 최근의 중요한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분위기를 변화 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수상** 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이희곤 사원

## 컴플라이언스는 우리의 보호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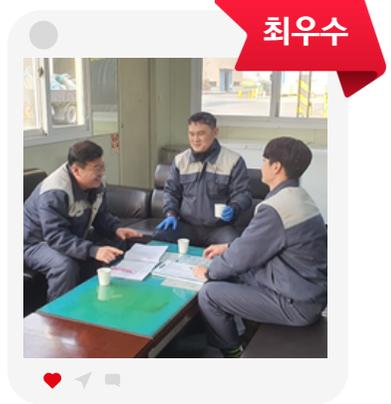
세아그룹 무관용 3대 정책은 올해 1월 입사한 저에게 바로 피부로 느껴진 정책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룹 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룹 차원의 3대 무관용 정책으로 빠른 대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저에게 컴플라이언스는 보호막**이 해주었습니다.

# 일하는 방식 WoW

"개인" 부문 두번째 주제는 개인별 매거진C 활용 우수사례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문화 형성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온 우리 모두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럼 매거진C는 2023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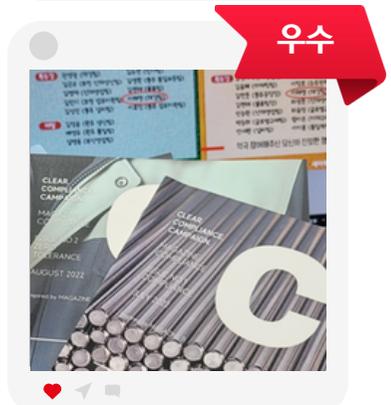
## 최우수상 특수강 봉강생산팀(포항) 하상용 계장

“매월 매거진C를 읽다보니, 업무 중 머리속에 남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나 때는 대신 라떼 한잔을 사준다." 현장관리자로서, 사무관리자와 현장작업자 간의 소통의 매개로서 역할을 수행했고, 나 또한 **소통 과정에서 라떼를 한잔 권하면서 경청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한번 읽어도 머리속에 남는 멘트로 인해서 효과는 우수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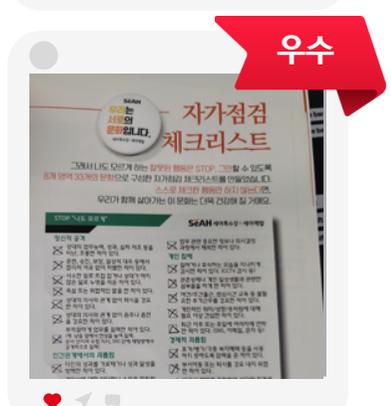
## 우수상 특수강 재경팀 이해명 사원

“매달 발간 되는 매거진C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유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몰랐던 부분이나 애매하게 알고있던 부분에 대해 **즐겁게 학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유퀴즈 5회 모두 참여)



## 우수상 특수강 선재생산팀(충주) 이슬 사원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읽어보며 체크**하면서 다짐도 해보고 친하다고 퇴근 후나 주말에 연락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경 쓰고 연락 전 꼭 해야하는건가 한번 더 생각하고 한다면 괜찮아 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 CLEAR COMPLIANCE CAMPAIGN

컴플실행단  
TF Member의 한마디

## 인사팀 | TF리더 봉효진 차장



저어게도 생소했던 컴플라이언스였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일까는 고민하는 괴로운 시간을 지나 자신있게 "클리어 컴플라이언스 캠페인"을 진행해왔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기본과 원칙을 실천하고, 한번 말은 일은 잘 해내고야마는 특수강·메탈 DNA**가 있었기에 CCC는 TF만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이 되어 다 함께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만들어왔다고 자부합니다. 함께 한 TF 멤버분들과 공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안전환경팀(포항) 김형섭 차장



올 한해 CP TF 멤버로 함께 활동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회사경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부분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세아특수강 전 직원들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심과 작은 노력이 모여져 **컴플라이언스 무결점 세아특수강·세아메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업무지원팀(충주) 이상은 과장



Compliance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의 업무 방향성을 세우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TF 진행함에 있어 다소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며 조언을 구하고, 진행했던 5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갔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미흡하지만 갖추어진 프로세스나 기준을 토대로 **우리현실에 맞게 구성하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 기준, 규정, 프로세스를 만든 것이 끝이 아니라 **만들어진 규정, 프로세스를 잘 적용하며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영기획팀 김민호 대리



T/F 구성원임에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지만 부서원 분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고, 임직원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활동 참여해주신 덕분에 올 한 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준법 마인드로 더욱 정정당당한 세아특수강·세아메탈**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 매거진 C

제 6 호      2022년 12월호  
발간일      2022년 12월 26일  
발행처      세아특수강 C/P TF  
주 소      서울 마포구 양화로45 세아타워 24층  
문 의      +82.2.6970.0216